



2007년도 하반기 사료곡물 수급동향 및 가격전망

1. 사료원료 가격동향

지난해 이후 사료용 곡물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사료업체 및 축산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지난해 이후 세계 곡물 수급의 불안정으로 인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은 채 금년 들어서도 지속적인 해상운임의 상승과 옥수수 선물가격의 상승이 모든 사료원료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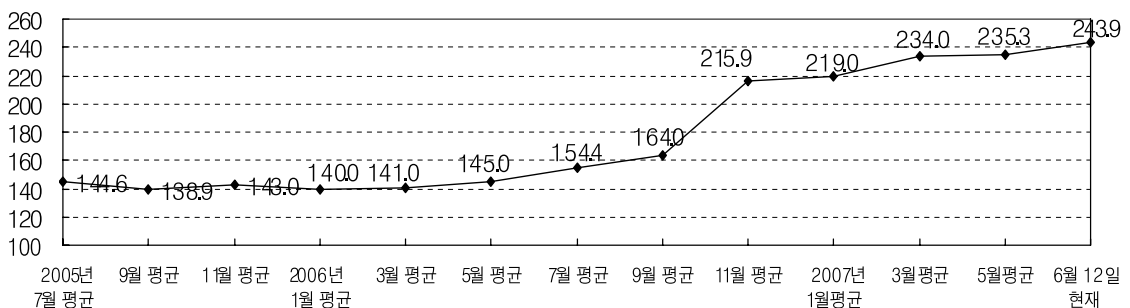
금년들어 미산 옥수수가격만 하더라도 C&F 톤당 220불 이상에서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타 부원료의 가격도 더욱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며 물량부족사태까지 보여주고

있다. 과거 미산 옥수수 가격의 상승 시 미산 옥수수 가격을 견제해 오던 중국산 옥수수의 경우도 자국 내 사료수요와 에탄올 수요증가로 인해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타곡류인 사료용 소맥이나 호밀 등은 공급이 중단된 지 오래이다.

또한 식물성 박류인 대두박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유통물량이 적은 기타박류인 채종박, 야자박, 팜박 모두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강피류인 소맥피 가격 역시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밖에도 대체 원료로 이용되던 타피오카나 루핀시드의 공급도 이미 공급이 중단된 지 오래이다 보니 주원료인 옥수수와 대두박 가격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 미산 옥수수 가격 동향(CBOT 가격기준)

(단위:C&F US\$/MT)





김치영
(사) 한국사료협회 부장

그러나 곡물 수입국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고곡가 추세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국제곡물시장의 수급구조의 변동으로 인해 장기화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곡물이나 유지작물 등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곡물이나 유지작물의 연료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수급 불안정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국지적인 곡물 수급의 불안정으로 야기됐던 곡물 수급의 불안정이 최근에는 미국, 중국,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곡물시장에서의 투기적인 매수까지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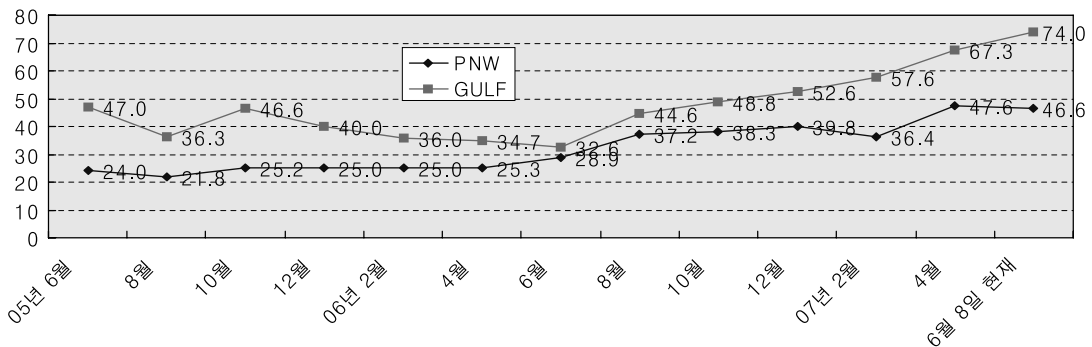
그러다 보니 미국의 소비자 단체 뿐만 아니라

일부 남미 국가에서에서는 식량인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에 대한 도덕적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 전 세계적인 식품인플레이션마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울들어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자국 내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곡물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금년도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를 비롯한 사료곡물 파종이 증가하면서 생산증가로 인한 가격안정을 기대했으나, 최근의 이상기온과 지속적인 바이오연료로의 사용증가로 인해 수급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 해상운임(Ocean Freight) 동향

(단위 : US\$/MT)





2. 세계의 사료곡물 수급전망

금년 6월 12일 발표한 미국 농무성의 세계 옥수수 수급현황을 보면 2007/2008년도 세계 옥수수 수급상황은 미국의 옥수수 식부면적의 증가(15.6%, 추정)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옥수수 사용량 또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에 따라 재고수준은 최저수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이후 중국의 옥수수 수출제한 조치, 남미산 산업용 옥수수 수요 증가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호주의 한발(drought)에 따른 기타곡물의 수급 불안정 심화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한국의 옥수수를 비롯한 기타곡물의 수급에 커다란 장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연간 150만톤 정도의 사료용 소맥과 호밀 등이 수입되었으나 최근 이들 사료용 소맥과 호밀 공급은 호주의 기상악화로 인하여 원활치 못함에 따라 얼마나 더 미산 옥수수 수입이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세계 옥수수 공급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의 경우 생산의 증가보다도 더 큰 수요 증가로 인해 과거와 같은 대량의 옥수수 수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우도 기상이변과 자국 내 에탄올 생산증가로 인해 생산이 가변적이다.

따라서 2007/2008년의 세계 옥수수 수출시장은 미국이 60.0%, 아르헨티나 19.2%, 브라질 7.8%, 중국 3.6%, 기타 국가들이 9.4%를 차지

[표 1] 미국의 옥수수 수급실적(07/08 USDA Report, '07년 6월 발표)

(단위 : 백만톤)

	공 급			수 요			기말재고
	기초재고	생 산	수 입	국 내		수 출	
				사료용	전 체		
2007/08 (전망)							
세계	94.68	767.96	82.33	484.13	770.84	83.11	91.80
미국	25.07	316.50	0.38	144.79	266.46	50.17	25.33
2006/07 (추정)							
세계	122.42	699.32	83.25	475.98	727.07	86.93	94.68
미국	49.57	267.60	0.25	148.60	238.14	54.61	25.07

[표 2] 미국내 옥수수의 총수요량 및 에탄올용 수요량 현황

(단위 : 백만톤)

	04/05	05/06	06/07	07/08
총생산량	299.9	282.3	267.6	316.5
총수요량(A)	224.7	231.7	238.1	266.5
에탄올용(B)	33.6	40.7	54.6	86.3
B/A(%)	14.9	17.5	22.9	32.3



함으로써 미국의 수출시장 지배력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옥수수 공급을 보면 지난 3개년 동안 지속적인 풍작을 기록함으로써 2005/06년도 기말재 고수준이 50.06백만톤에 달했으나, 2006/07년도 25.07백만톤, 2007/08년도 25.33백만톤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미 농무성은 향후 미국의 옥수수 공급량의 증가가 이 같은 미국의 사료용 및 공업용 옥수수의 국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생산량 증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급 불안정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들어 유가상승으로 인해 미국내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998/99년 이후 8년동안 연평균 40% 이상 증가해 왔으며, 2006/07년의 경우 옥수수의 해외 수출량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어서 2007/08년의 기말재고수준은 25.33백만톤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재고율은 8.0%로 적정재고율인 18.0% 수준에 크게 못미침)

미국내 에탄올 옥수수 사용량은 2006/07년의

경우 미국내 옥수수의 국내 사용량인 238.1백만톤의 22.9%인 54.6백만톤으로 추정되며 2007/08년에는 86백만톤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2. 참조)

따라서 지난 10여년간 단위당 옥수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7/08년도 미국의 옥수수 기말재고가 크게 감소할 전망임에 따라 미산 옥수수 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하반기 사료원료 가격 전망

향후 미산 옥수수의 가격은 금년도 파종면적의 증가로 인한 생산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요량의 증가로 인해 낮은 재고수준을 유지하며, 특히 에탄올 생산량의 급증으로 인한 미국내 옥수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옥수수 가격을 강제로 끌어갈 전망이다. 이미 금년 들어 미국내 옥수수 파종이 1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완료된 시점임에도 미국의 곡창지대인 콘벨트지역의 불안한 기상여건으로 인해 곡가를 안정시키기에는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또한 금년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폭등

[표 3] 주요 사료용원료의 가격동향

(단위 : US\$/MT)

	'06.10(A)	'07.4(B)	최근구매품가(C)	상승률 (%)	
				C/A	C/B
옥수수	153.6	197.9	221.1	43.9	11.7
소맥	151.4	199.5	209.5	38.4	5.0
대두박	221.2	251.2	284.9	28.8	13.4
소맥피	125.1	153.7	183.8	46.9	19.5
야자박	121.5	159.5	178.0	46.5	11.5

주) 통관가격 기준임.



하고 있는 해상운임 또한 최근 들어 다소 안정국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료 원료 가격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옥수수 가격 상승은 세계 곡물시장의 특성상 대두박 등 기타 사료원료의 동반상승으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원료 가격을 강세로 끌고갈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이후 지속적인 곡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 사료업체에서 구매할 사료용 옥수수 가격은 C&F 톤당 220불을 넘어서고 있으며, 일부 수출이 예상되는 중국산 옥수수 역시 미산 옥수수에 비해 큰 가격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사료원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입장은 아니고 사료곡물을 대부분 해외시장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 대만 뿐만 아니라, 곡물을 원료로 하는 국내 식품산업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배합사료 제조비용 중 원재

료비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축산물 생산비 중 40~6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수입원료 가격의 폭등은 앞으로 축산물 생산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향후 배합사료 가격 상승과 축산물의 원가상승으로 인해 사료산업과 축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에 따라 이에 따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배합사료의 원가절감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료원료의 관세인하와 함께 사료원료 수입시 선택폭을 늘려주기 위해서 사료용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전지대두나 타피오카 칩 등에 대한 수입허용도 시급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양축농가들이 지금과 같은 고비용 구조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산규모를 통해 축산물 가격안정을 기하고, 경제적인 사양관리를 통해 생산비 절감등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